

### 3. 금융안정

#### 가. 거시건전성 분석·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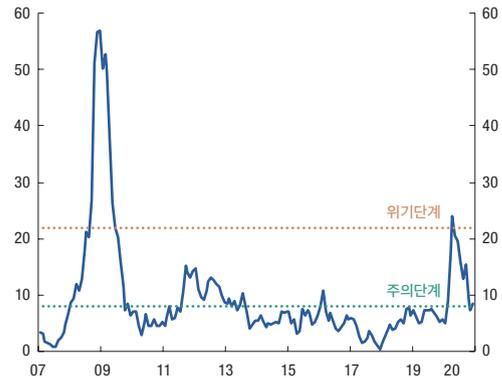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대응하여 가계 및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동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과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 금융안정상황 점검<sup>56)</sup>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3월 들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신용경계감이 확산되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을 회복하였다.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계 및 기업 모두 차입을 크게 늘리면서 민간신용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 및 실적 부진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저하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sup>57)</sup>(FSI, Financial

Stability Index)는 4월 위기 단계에 일시 진입하였다가 하락세를 지속하여 2020년 12월 말 현재 주의단계 임계치(8.0)를 소폭 상회하고 있다.

그림 III- 5. 금융안정지수(F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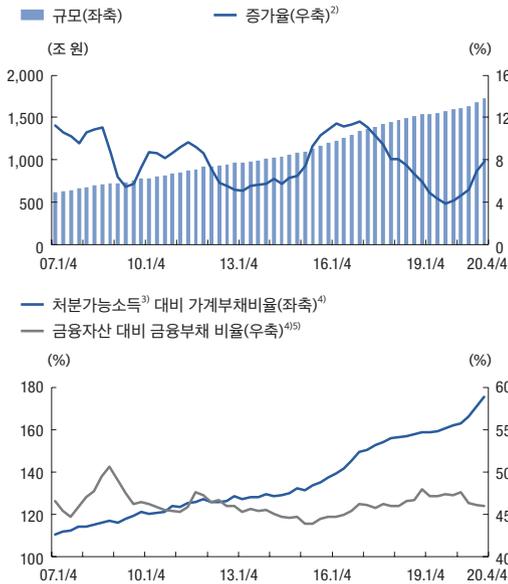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2020년말 215.5%(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 18.4% 포인트 상승하는 등 큰 폭 증가하였다. 민간신용의 증가율이 가계 및 기업부문 모두 크게 확대된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명목GDP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되었다. 가계신용은 주택거래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소득증가율이 정체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증대되었다. 다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하락하는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56)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상황을 매분기 점검하는 금융안정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회의의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당일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6월 및 12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당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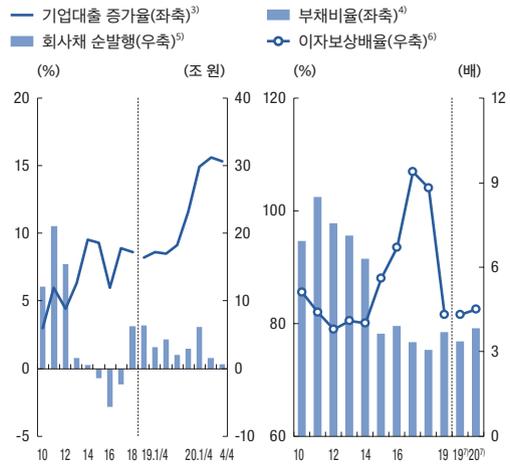
57)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문(은행, 금융시장, 대외, 실물경제, 가계, 기업)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로, 금융안정 상황을 정상, 주의, 위기 단계로 구분하며 주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위기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8과 22로 설정하였다.

그림 III- 6. 가계신용<sup>1)</sup>

-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분기 자료는 추정치  
4) 20년 4/4분기는 추정치  
5) 자금순환통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기업신용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 조치, 기업들의 자금확보 노력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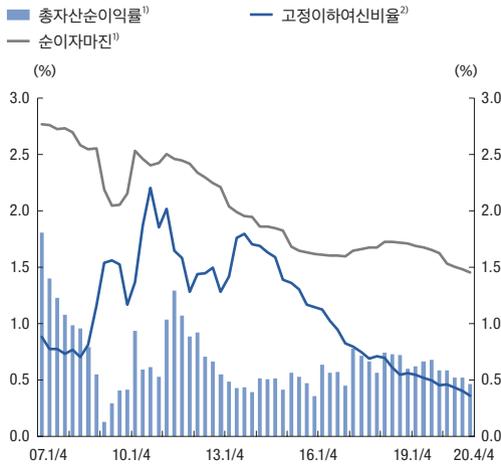
그림 III- 7. 기업신용<sup>1)</sup> 및 재무건전성<sup>2)</sup>

- 주: 1) 예금은행(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기업(금융 및 보험업 제외)대출 기준  
2) 사업보고서 공시 상장기업, 일부 비상장기업 등 총 2,248개 기업 대상  
3) 전년동기대비 기준  
4) 부채/자기자본, 기말기준  
5) 분기 중 기준(19년 이후)  
6) 영업이익/이자비용  
7) 각년도 3/4분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KIS-Value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의 경영상황은 자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수익성도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소폭 저하되었으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산 성장세가 지속된 가운데 대부분의 업권에서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경영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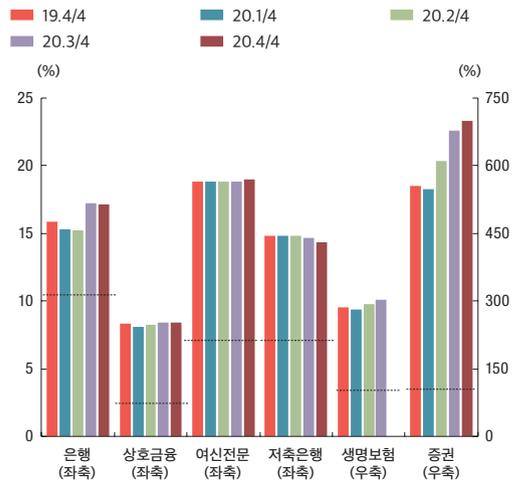
그림 III- 8.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2)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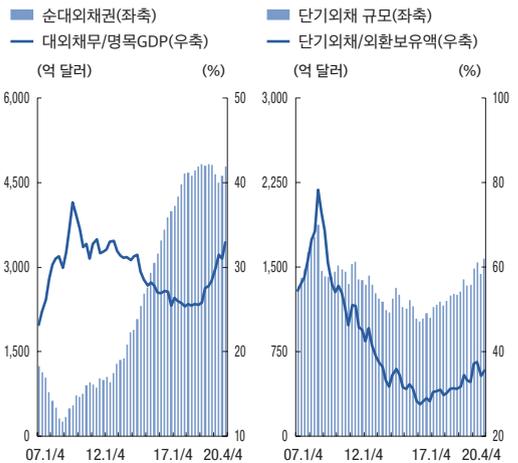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일반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바젤Ⅲ 개편안 조기 도입 등으로 상승한 가운데 유동성 대응능력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권에서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금융불균형이 조정되는 예외적인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금융업권별 평균 자본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충격에 취약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의 부실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외지급능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시 저하되었으나 외환보유액이 큰 폭 증가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그림 III- 9. 금융기관<sup>1)</sup> 자본비율<sup>2)3)</sup>



주: 1) 은행은 일반은행 기준, 20년 4/4분기는 잠정치  
 2) 은행 총자본비율(10.5%, D-SIB은 11.5%),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감독기준 2%, 새마을금고는 4%, 농협은 5%), 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7%, 신용카드회사는 8%),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7%,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은 8%),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100%), 증권회사 순자본비율(100%)  
 3) 점선은 감독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II- 10.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sup>1)</sup> 및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sup>1)</sup>



주: 1) 분기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앞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 등 국내외 불안요인에 유의하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간의 레버리지가 높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차별적인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과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변화에 따른 자산가격의 조정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증대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 공동검사 수행 및 국내외 금융안정 현안 논의 참여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스템 내 누적된 잠재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가계 및 기업 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급증한 가계 및 기업 여신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관리 실태와 경영건전성을 점검하였으며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에 의한 가계부채 누증 위험, 부동산 관련 대출부실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겪은 가계, 기업의 유동성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시된 대규모 금융지원의 효과와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전 금융권 기업대출 미시데이터 DB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상시감시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II-9.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회)

	2016	2017	2018	2019	2020 <sup>1)</sup>
부문검사	3	4	3	4	-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	3	2	2	2	2

주: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1~9월중 공동검사를 중단

자료: 한국은행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은행감독 실무그룹 회원기관으로서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 회원국 은행감독국장 회의 등에 참여하여 역내 금융안정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sup>58)</sup>(Supervisory College)에 참석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은행의 글로벌 경영전략 변화 및 성과,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논의하고 이를 국내은행 공동검사업무 수행에 활용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관계기관 간 「거시경제금융회의<sup>59)</sup>」,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등에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등이 국내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정보공유 및 정책협력을 위해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먼저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회원기관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고 정책대응 상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핀테크, 암호자산,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금융

58)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본점 소재국과 진출국 금융당국자들이 참가하는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이다.

59)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2012년 7월에 신설되어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다.

안정 리스크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후 관련 금융리스크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간 논의체인 녹색금융네트워크(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sup>60)</sup> 산하 연구그룹에도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FSB 산하 아시아 지역자문그룹과 동남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 은행감독실 무그룹의 회원기관으로서 역내 금융안정 현안을 논의하였다.

## 나. 외환시장 안정조치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 및 기업 등에 외화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는 한편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 공급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중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 확대로 미 달러화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스왑자금을 활용하여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총 6회에 걸쳐 은행을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98.72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였다. 3월 하순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 유동성 사정이 개선된 데다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이미

공급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자금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전액 회수되었다.

표 III - 10.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공급 및 회수 현황

(억 달러)

회차	공급	회수
3. 31일(1회차)	79.20 (84일물)	79.20 (6.25일)
	8.00 (7일물)	8.00 (4. 9일)
4. 7일(2회차)	41.40 (84일물)	41.40 (7. 2일)
	2.75 (8일물)	2.75 (4.17일)
4.14일(3회차)	20.15 (83일물)	20.15 (7. 9일)
	0.10 (6일물)	0.10 (4.23일)
4.21일(4회차)	21.19 (84일물)	21.19 (7.16일)
4.27일(5회차)	12.64 (85일물)	12.64 (7.23일)
5. 6일(6회차)	13.29 (83일물)	13.29 (7.30일)
합계	198.72	198.72

자료: 한국은행

###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와 함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3월 중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상향 조정<sup>61)</sup>하고 외화LCR<sup>62)</sup>을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하향 조정(80% → 70%)함으로써 은행 등 금융기관이 외화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도 한시적으로 경감<sup>63)</sup>하였다.

60)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 관행 공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설립된 자발적 논의체로서 한국은행은 2019년 11월 가입하였으며 2020년 12월 말 현재 83개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가 참여 중이다.

61) 국내은행은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62) 2017년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이며, 향후 30일 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63) 2020년 2/4분기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였으며, 2020년 중 정수 예정인 부담금(2019년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방법을 조정하였다. 즉 2회에 걸쳐 5:5의 비율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분할납부 비율을 1:9로 조정하고 2회차 부담금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였다.

##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와 함께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를 2020년 9월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 국채를 일정 기간 동안 환매조건부로 매입함으로써 미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은행의 외화자금 중개 기능 저하 시에 시행되어 자금수급 불안이 외환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중국, 호주 등과 통화스왑 연장계약 체결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sup>64)</sup>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0월에는 중국인민

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을 연장하며 규모와 기간을 모두 확대<sup>65)</sup>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시기에도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장치를 강화하고 만기 관련 불확실성을 축소하였다. 아울러 2월에는 호주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연장하며 스왑 규모를 20%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2월) 및 인도네시아(3월)와의 통화스왑계약을 순차적으로 만기 연장하는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스왑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였다.

###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한국은행은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정 협정문이 6월 23일 발효되는 데 기여하였다. 협정문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금지원 기간 확대, 신용공여조건 체계 구축, IMF와의 협력 메커니즘 제고 등이다. 또한 CMIM의 실행력(operational readiness) 제고를 위한 모의훈련<sup>66)</sup>에 참여하여 역내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다.

64) 계약 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 두 차례(7월, 12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9월까지로 만기를 연장하였다.

65) 계약 규모는 기존 3,600억 위안/64조 원에서 4,000억 위안/70조 원으로, 계약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66) CMIM 자금인출 모의훈련은 2020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금번 제11차 모의훈련은 위기예방 목적(precautionary line)의 실거래 테스트로서 2개국 중앙은행이 통화스왑 자금을 요청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ASEAN+3 회원국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실시되었다.

표 III- 11.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구분	체결 국가	규모 (미 달러 <sup>1)</sup> 기준)	최근 체결· 연장일	만 기
자국 통화 스왑	미국	600억 달러	2020년 12월	2021년 9월
	캐나다	사전한도 없음	2017년 11월	없음
	스위스	100억 프랑/11.2조 원 (약 106억 달러 상당)	2018년 2월	2021년 3월
	중국	4,000억 위안/70조 원 (약 590억 달러 상당)	2020년 10월	2025년 10월
	인도네시아	115조 루피아/10.7조 원 (약 100억 달러 상당)	2020년 3월	2023년 3월
	호주	120억 호주달러/9.6조 원 (약 81억 달러 상당)	2020년 2월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150억 링깃/5조 원 (약 47억 달러 상당)	2020년 2월	2023년 2월
	UAE	200억 디르함/6.1조 원 (약 54억 달러 상당)	2019년 4월	2022년 4월
미달 러화 스왑	CMIM	384억 달러 <sup>2)</sup>	2014년 7월	—

주: 1) 최초 또는 규모 확대 체결 시 환율 기준

2) CMIM 총 재원은 2,40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수혜 및 분담 규모는 각각 384억 달러(16%)

자료: 한국은행

## 참고 III-2.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유동성 공급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외환시장은 3월 들어 긴장이 높아졌다. 특히 3월 10일 이후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인 미국 국채시장에서 교란이 발생하는 등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스왑레이트가 급락하는 등 혼란이 초래되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한 주요국 중앙은행들 간의 정책공조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미 연준<sup>67)</sup>과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통화스왑 규모는 미 연준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결한 계약의 두 배 수준인 600억 달러로 큰 폭 확대되었다. 통화스왑계약 체결 발표만으로도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sup>68)</sup>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하였다.

곧이어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실시하여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4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98.72억 달러를 공급하였으며 평균 낙찰금리(84일물)는 1회차 0.9080%에서 6회차 0.2941%를 기록하는 등 회차를 거듭함에 따

라 크게 하락하였다. 통화스왑 자금 공급 후에는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이 개선<sup>69)</sup>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글로벌 달러화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달러 자금시장 경색 재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화스왑계약 만기를 두 차례(7월, 12월) 6개월 연장<sup>70)</sup>하였다.

표 III- 12.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세부 내역

(억 달러, %)

입찰일	대상거래	입찰금액	낙찰금액	낙찰금리 <sup>1)</sup>
3.31	84일물	100	79.20	0.9080
	7일물	20	8.00	0.5173
4. 7	84일물	70	41.40	0.5323
	8일물	15	2.75	0.4819
4.14	83일물	35	20.15	0.3567
	6일물	5	0.10	0.3300
4.21	84일물	35	21.19	0.3386
	6일물	5	0.00	-
4.27	85일물	40	12.64	0.3348
5. 6	83일물	40	13.29	0.2941
합계	-	365	198.72	-

주: 1) 가중평균 낙찰금리

자료: 한국은행

67) 2020년 3월 19일 미 연준은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을 포함한 9개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발표하였다. 계약 규모는 각각 600억 달러(한국, 호주, 싱가포르, 스웨덴, 브라질, 멕시코) 및 300억 달러(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이며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68)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발표한 다음날인 3월 20일 코스피는 7.4%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3.1% 하락하였다.

69) 외환스왑레이트(3개월물)는 3월 -141bp에서 5월 -32bp로 109bp 상승하였다.

70) 통화스왑 규모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며 계약 기간만 각각 2021년 3월 31일,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다.